전시장 '숨은 진주' 여기 있었네

제2갤러리에 설치된 '에너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통로에… 구석에…

재미있고 신기한 작품 찾아보는 재미

아름다운 풀꽃은 보일 듯 말 듯, 발 밑에 숨어 있다. 그냥 지나치면 알 수 없지만, 눈 밝은 나그네는 꼭꼭 숨어 있는 진주를 찾아 내 행복을 만끽한다. 제4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10월 23일까지)에도 관람객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곳에 설치돼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는 '숨은 진주'가 많다.

이번 전시의 전시장 구성은 하나의 가상 디자인 도시 형태로 꾸려졌다. 이 때문에 자칫 동선을 잘못 짜면 보지 못하는 작품도 나올 수 있고, 무심히 지나쳐버리면 그 가치도 알 수 없게 된다.

먼저 비엔날레 전시관 제3갤러리에 가장 안 쪽에 설치돼 있어 상대적으로 노출이 덜 되고 있는 '템플 그렌든'이 대표 희생작품(?)이다. 이 작품은 어린 시절 자폐아 진단을 받은 템플 그렌든이 고안한 도살장 디자인이다.

그녀는 순간적인 이미지를 기억하는 능력이 뛰어나 소의 움직임을 하나의 이미지로 기억하기 시작했고, 이런 소의 행동에 맞는 사육장을 디자인했다. 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미로를 설치해 소의 시선을 가리는 등 인간이 베풀 수 있는 마지막 배려가 이 작품에 녹아 있다.

제2갤러리 안쪽에 설치된 '에너지'도 놓치면 서운한 작품. 서울에서 광주까지 고속도로휴게소에서 파는 모든 에너지 음료를 모아 진열하고, 이들 음료를 서로 섞어 놓은 이색 작품이다. '더 크게, 더 낫게, 더 빨리, 더 강하게'를 추구하는 현대 사회를 꼬집고 있다. 이들 상품이 단순히 열량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 힘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뒤섞인 건강 음료는 마치 시궁창 물 처럼 충격을 준다.

'에너지' 인근에 설치돼 있는 '치료 거울 상자'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지나치기 쉬운 작품이다. 이 작품은 잘려나간 신체의 일부가 여전히 아프다고 생각하는 '환상통'을 치유하기 위한 디자인이다. 환상에서 오는 신경학적 고통을 누그러뜨리는 디자인의 비밀은 의외로 간단한다. 거울이 달린 상자에 멀쩡한 손과 다친 손을 넣으면 뇌가 두 손 모두 완전한 손으로 보이게 해 주는 원리다. 관람객이 직접 체험도 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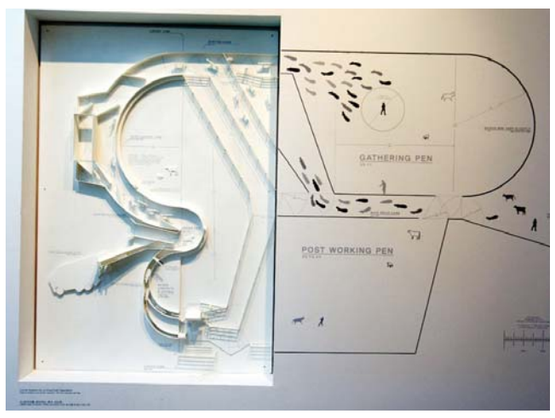
또 관람객들의 이동 통로에 위치해 있어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작품들도 있다.

1·2갤러리와 3·4갤러리 사이의 통로에 놓인 '기아 디자인 아트웍스'는 사각지대에 놓인 작품이다. 소통과 환경을 주제로 기아차 디자이너의 눈으로 새롭게 해석한 사람, 자연, 사물 등을 종이와 목판 등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선사한다.

3갤러리와 4갤러리 사이의 복도에 설치된 '알파에서 히읗까지'는 가장 오래된 글자인 라틴 알파벳의 첫 글자 알파에서 가장 최근의 글자 한글의 마지막 글자 히읗을 한 획으로 죽 그어 표현한 작품이다.

광주비엔날레 재단 전광미 홍보사업부장은 "재미있고 신기한 작품이 많다보니, 일부 작품은 미처 발결하지 못하고 놓칠 수도 있다"면서 "관람하기 전에 전시장 도면을 살펴보면 관람 동선을 미리 확인하는 게 요령이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제3갤러리 가장 안 쪽에 설치된 '템플 그렌든'

1·2갤러리와 3·4갤러리 통로에 놓인 '기아 디자인 아트웍스'

"디자인 참 쉬워요"

디자인 비엔날레 '어린이 도록' 발행

"디자인은 어렵지 않아요, 어린이 도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번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어린이 도록'을 발행했다. 어린이 도록의 글과 그림은 유명 만화가이자 삽화가인 선현경씨가 맡아, 재미와 감동을 더했다.

도록에는 '디자인이 뭔데요'라고 묻는 친근한 인상의 어린이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수박썰기' '손글씨쓰기'와 같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을 디자인 개념과 접목시켜 디자인을 설명해준다.

또 도록을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비엔날레 관람 중 기억에 남는 디자인 작품 그려보기' '직접 손 글씨 만들어보기'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어린이들이 직접 디자인을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어린이 도록은 광주비엔날레 1층 북카페와 비엔날레 홈페이지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한편 선현경씨는 홍익대 미술대학 도예과를 졸업한 뒤 2004년 '이모의 결혼식'으로 제10회 황금도깨비상 그림책 부문을 수상했다. 문의 062-608-422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남도의 멋 런던 홀린다

강봉규·한희원·박유진씨 주영한국문화원서 전시

침이 꼴깍 넘어가는 푸짐한 밥상, 햇살 어린 낮은 돌담, 대숲에서 불어오는 바람, 야트막한 산과 흘러가는 소리마저 정겨운 강, 땅을 닮아 넉넉하게 늙어가는 할머니. 지역 작가들이 현대시각예술의 중심지 영국 런던에 질펀한 전라도의 멋을 풀어놓는다.

원로 사진작가 강봉규씨와 서양화가 한희원씨, 섬유공예가 박유진씨가 오는 10월 4일부터 18일까지 영국 런던에 위치한 주영한국문화원에서 전시를 갖는다.

이들은 가장 남도적인 표정과 풍경을 사진과 회화, 공예에 담아 유럽에 소개한다.

강봉규(광주 예술인회 이사장) 작가는 한국의 선비 문화와 정신을 바탕으로 한 우리 민족의 삶의 지혜를 카메라 앵글에 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50여년 가까이 사진기자와 작가로 활동하며 찍은 사진 35점을 문화원 1층 메인 전시장에 선보인다. 장독대, 혼례식, 씻김굿, 다듬이질,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 할아버지와 손자가 겸상하는 오붓한 풍경이 이색적이다.

또 허물어져 가는 농촌의 낡은 집, 그곳에 남겨져 있는 늙은 어머니 등 시간의 저편으로 사라져가는 옛 모습이 흑백으로 그려졌다. 이들 풍경은 손 대면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듯 허술하지만,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을 여운을 남기고 진한 감동을 준다.

한희원씨는 푸른빛이 감도는 밤하늘, 어둠이 쌓인 마을 풍경, 나뭇잎의 움직임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바람 등을 소재로 서정적인 화풍을 선사한다. 공포가 느껴질 정도로 푸른 밤하늘과 어렴풋하게 빛나는 허름한 창문의 불빛을 대비시켜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또 박유진씨는 천연염색과 바느질로 탄생시킨 섬유공예품 20여점을 소개한다. 옛 나라 '마한'에서 착안한 '마하니'라는 가상의 이름을 만들어 남도의 색과 선을 선사한다. '고성의 천 년'은 1872년에 제작된 나주 지도에 현재 조성 중인 영산강 뱃길을 덧붙인 작품. 홍화씨로 염색한 원단에 옛 지도와 차꽃, 차밭, 금성산의 모습이 천연염색 실로 수놓아져 있다.

한편 (주)우리로광통신 김국웅 회장이 메세나 운동의 일환으로 이번 전시를 지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강봉규 작 '솟대'

박강수 콘서트

24일 광주영상예술센터

영화 '마파도'와 '최후의 만찬' OST에 참여해 주목받은 포크 가수 박강수의 단독 콘서트가 오는 24일 오후 4시, 7시 광주 사직공원 내 광주영상예술센터에서 열린다.

'여자 한대수' '여자 김광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강수는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추억과 순수를 전해주고 있다. 지난 10년간 소극장 무대에서 작사, 작곡, 노래까지 모든 것을 소화해내며 관객들과 소통해 오고 있는 언더그라운드 싱어송 라이터다.

5집 음반 '소녀' 출시를 기념해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앨범의 타이틀곡 '소녀'를 비롯해 주옥같은 신곡을 발표한다. '소녀'는 풍부한 여백과 감성이 듬뿍 담긴 곳이며, 한 폭의 풍경화를 감상하는 듯한 잔잔한 감동을 준다. 티켓은 3만3000원, 조기 예매시 2만5000원. 문의 02-718-348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올 가을에도 정성을 다해 고객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 평일 주중 점심 특선 : 오찬정식 15,000원 ● 30년 전통의 한정식 : 25,000원부터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moviehelic 선택이 즐거운 영화산책

상담원연결 방법→(1번 or 2번)→0번
☎ 1588 - 7941

상무점 / 하남점
향토사랑 영화사랑 콜롬버스시네마

상무점		하남점	
1관	샤크나이트(15세)	1관	최종병기 활(15세)
2관	챔프(12세)	2관	가문의영광4(15세)
3관	가문의영광4(15세)	3관	가문의영광4(15세)
4관	가문의영광4 / 아따맘마 3D	4관	아따맘마 3D(전체)
5관	콜롬비아나 / 파이널데스티네이션5	5관	통증(15세) / 파이널데스티네이션5
6관	혹성탈출 / 가문의영광4	6관	푸른소금(15세)
7관	최종병기 활(15세)	7관	파퍼씨네 펭귄들(전체) 마당을나온암탉(전체)
8관	푸른소금(15세)/ 통증(15세)	8관	마당을나온암탉 / 최종병기 활
9관	혹성탈출/파퍼씨네 펭귄들	9관	챔프(12세)
10관	최종병기 활(15세)	10관	샤크나이트(15세)

리뉴얼 오픈기념 BIG EVENT 500만원 상당의 경품행사! 달라진 콜롬버스상무점을 소개하면 행운한 경품이 팡팡
조조 영화한편 어떠세요? /호남최대주차장 / www.cinus.co.kr
3,000원 저렴하게, 선착순 30분께 이벤트 팝콘 증정

구. 런던약국사거리
☎ 1544 - 0600

MEGABOX

M관	가문의영광4(15세)	최고급관
2관	통증(15세)	
3관	푸른소금(15세) 파퍼씨네펭귄들(전체)	
4관	혹성탈출-진화의시작(12세)	
5관	샤크나이트(12세)	
6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5	
7관	가문의영광4(15세) / 챔프(15세)	
8관	블라인드(18세)	
9관	최종병기 활(15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차타워, 황금주차빌딩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 :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cinus

1관	혹성탈출:진화의시작(15세)
2관	파퍼씨네 펭귄들(전체)
3관	최종병기 활(15세)
4관	챔프(12세)/푸른소금(15세)
5관	세 얼간이(12세)/통증(15세)
6관	샤크나이트(15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5(18세)
7관	가문의영광4(15세)

색깔있는 영화산책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